

# 한국 진즈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최 해 주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Korean Jeans Fashion

Hae-Joo Choi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6. 1. 6 접수; 2. 20 채택)

### Abstract

Jeans fashion in contemporary fashion has various meanings and values, and the importance of it incr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values of Korean jeans fashion.

Fashion photographs from leading monthly fashion magazines from 2000 to 2005 were analyzed.

The types of styles and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values of Korean jeans fashion were studi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types of Korean jeans fashion styles were western style, punk style, neo classic style and ethnic style.
2.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jeans fashion designs were the varieties in material, color, technique of expression and application.
3.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were traditionalism, sexualism, extraordinarity and exhibitionism.

Korean jeans fashion has developed creative and decorative designs through various designs and styles.

As the activities of the people can be increased in the future, the function and the design of jeans fashion can be developed diversely.

**Key Words:** Jeans(진즈), Traditionalism(전통성), Sexualism(관능성), Extraordinarity(파격성), Exhibitionism(과시성)

---

Corresponding author ; Hae-Joo Choi

Tel. +82-11-9986-3370, Fax. +82-2-760-4484

E-mail : hjchoi@hansung.ac.kr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 1. 연구 의의 및 목적

진즈 웨어는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광부들의 작업복으로 착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대에 이르러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착용되고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진즈 웨어가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 것은 현대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패션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의 변화, 새로운 개념과 관계 성립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게 되면서 패션에서도 포멀한 스타일보다 캐주얼한 스타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진즈 웨어는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튼튼하고 질긴 의복에서 출발하여 20세기 중반에는 반문화 패션으로서 청년문화와 대중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1979년 최초의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인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진즈 패션이 등장함에 따라 젊음, 계급 부재, 노동복, 무격식, 유니섹스, 자유, 강인함을 의미하던 기존의 특성에서 벗어나 유행, 에로티시즘, 계층 구분 등 양면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sup>1)</sup>. 1980년대 이후에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많이 전환되면서 고급스러운 패션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주류문화 패션으로서의 진즈 패션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진즈 패션은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며, 유행을 선도하는 가장 대중적인 패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 중 약 절반 가량이 블루 진즈를 착용하고, 20대 전반 젊은 층의 약 반 정도가 일주일에 3~4일간을 블루 진즈를 착용하며, 성인 여성의 착용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블루 진즈가 최고의 아이템에 올랐다고 한다<sup>2)</sup>.

현대패션에서 진즈 패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대 패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진즈 패션의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외 진즈 패션에 대한 연구<sup>3)4)5)</sup> 이외에 한국 진즈 패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진즈 패션에 표현된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패션디자인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한국 진즈 패션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로 관련 전문서적, 논문,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 등 문헌을 참고로 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로 시각적 자료인 국내 패션 잡지에 나타난 한국 브랜드와 한국 디자이너의 진즈 패션디자인을 검토하였다. 시각적 자료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판 엘르(Elle)와 한국판 마리 끌레르(Marie Claire)에 나타난 한국 진즈 패션디자인을 분석하였다.

## II. 진즈 패션의 개념과 변천

### 1. 진즈 패션의 개념

진(Jean)은 프랑스의 님(Nimes) 지방에서 16세기 경에 시작되었다고 하며<sup>6)</sup> 능직(Twill)으로 된 목면 옷감을 말하는 것으로, 데님(Denim)과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된다. 진의 기원과 직접적인 관련 직물은 ‘면서지(serge de cotton)’로 ‘면서지’ 중 특히 황갈색 서지를 ‘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sup>7)</sup>.

데님은 프랑스의 님 지방에서 생산되는 능직의 면직물을 말하며<sup>8)</sup>, 이것을 ‘서지 드 님(La serge de Nimes)’라고 불렀는데 이후 미국식 표기로 바뀌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님으로 표기하게 되었다<sup>9)</sup>.

오늘날 데님 칭바지가 ‘진즈(Jeans)’로 불리우게 된 것은 이태리 항구 도시 제노바(Genova) 지방의 선원들이 착용하면서 ‘젠스(Genes)’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데서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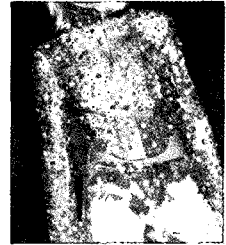
<그림1> 1905년, 리바이스 블루존, *Histoires du jeans*. p.156



<그림2> 1933년, 웨스턴 스타일의 데님 팬츠, *Histoires du jeans*. p.36



<그림3> 1969년, 유니섹스 룩의 진즈 패션, *A History of Fashion*. p.271



<그림4> 20세기 후반, Roberto Cavalli 작품. 탈색, 준보석, 모피, 금속, 지수 장식의 진즈 패션, Roberto Cavalli. p.52

진즈라는 이름이 점차 직물에서 바지로 뜻이 전이된 것은 20세기 중반기 (1925-1950년대) 동안이다<sup>10</sup>). 오늘날 진즈는 데님지로 만든 바지, 작업복 바지 또는 오버롤즈를 말하며, 앞뒤에 장식 스티커로 박은 주머니들이 달려 있으며, 덩거리, 리바이스, 오버롤즈라고도 한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즈의 개념에 의해 진 또는 데님을 소재로 하여 구성된 다양한 아이템을 진즈 패션으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

## 2. 진즈 패션의 변천

오늘날 세계인의 일상복으로 정착이 된 ‘진즈 웨어’는 그 유래를 1850년대 미국 서부지역의 노동자의 작업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크라멘토(Sanramento) 강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금에 대한 붐(Gold Rush)이 일어나면서 격렬한 금광 채굴에 따른 노동과 텐트생활을 견딜 수 있는 질기고 값싸면서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직물상을 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가 1853년 천막이나 텐트용 캔버스 직물을 이용하여 오버롤 진즈(overall jeans)를 만든 것이 최초의 진즈 웨어가 되었으며<sup>12</sup>), 1870년대 후반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의해 데님에 인디고 블루로 염색한 직물이 등장하면서 캔버스지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sup>13</sup>).

양복점을 경영하던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가 구리 리벳(rivet)으로 작업복의 터지기

쉬운 부분을 강화하여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허리 밴드에 가죽 라벨을 부착하고 주머니에 활모양의 스티치를 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 리바이스에 의한 진즈의 첫 출현은 미국 서부의 광부, 카우보이, 철도 공사 노동자, 농부 등의 중요한 작업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sup>15</sup><그림1, 2>.

진즈 웨어는 1920년대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예술가 집단에 의한 일종의 반 패션(anti-fashion)으로 헐리웃 스타들과 미국 동부의 부호들, 도시 여성에게 패션 아이템으로 수용되었다.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군인들의 유니폼인 데님 작업복을 통해 진즈의 유행이 유럽에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1940년대 전쟁 당시 심한 작업 노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데님 작업복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남녀 대학생들은 노동자들과의 일치 단결의 표시로 진즈를 입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말의 유니섹스 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1950년대 이후에는 영화와 록앤롤(Rock & Roll) 음악의 스타들을 통해 젊음과 반항의 청년 문화와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에는 진즈 붐이 크게 일어나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이념의 표현방식으로 착용되었다<sup>17</sup>).

1960년대가 되면서 진즈는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되었는데, 힙이 꼭 끼는 스타일, 넉넉한 스타일 등이 등장하였으며, 개성의 표현으로 자수, 애플리케, 패치, 징 등으로 장식한 진즈가 전개되었다<sup>18</sup>). 1960년대 후반 유니섹스 룩<그림3>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진즈 웨어는 남녀

공용의 의상으로 청년문화의 상징처럼 젊은이들에게 입혀지기 시작하였다<sup>19</sup>). 1960년대 에스닉에 대한 관심과 함께 히피스타일이 등장하여 빛바랜 진즈 웨어를 선호하였으며, 진즈는 젊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의미로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급되었으며 기성세대에도 영향을 주었다<sup>20</sup>).

1970년대 후반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의 출현으로 진즈 웨어의 고급화가 시작되었으며, 사회적 지위 상승과 브랜드 차별이 가시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영국과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여 블루 진즈 차림은 세계적인 일상복으로 정착되었다. 1980년대 이후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다양한 패션 진즈가 다양한 가공법과 구성법의 발달과 함께 다양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진즈를 더욱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그림4> 반문화 패션으로서의 진즈의 반항성을 약화시켰고 주류문화 패션으로 이끌고 있으며, 실크데님, 모피 트리밍, 화려한 비즈 장식과 함께 히피, 핑크 등의 해체적 스트리트패션의 표현의 진즈를 하이패션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 3. 국내 진즈 패션의 변천

우리 나라에 진즈가 처음 소개된 것은 6.25 전쟁 이후 미군들에 의해서이며, 1956년 태창기업에서 처음으로 블루 진 원단을 생산하게 되었다<sup>21</sup>).

1960년대는 청년문화가 꽃피었던 시대로 대학생 층에서 블루 진즈, 통기타, 생맥주가 어우러져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진즈를 패션으로 인식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sup>22</sup>). 1960년대에는 주로 젊은이들이 남녀 구분 없이 대체로 몸에 붙는 스타일의 진즈를 선호하였다<sup>23</sup>).

1970년대에는 블루 진즈 착용이 사회적인 반감을 사게 되었고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으로까지 확대표현되었다<sup>24</sup>).

1970년대에는 남녀 교육의 평준화와 여성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적 진출 등에 의해 남녀의 역할이 비슷해졌으며 이에 따라 복식에서도 남녀차가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즈 패션과 캐주얼 웨어 등이 크게 유행하여 유니섹스 패션이 새로운 현대 패션으로 인식되었으며, 티셔츠와 함께 블루 진즈는 젊은이들의 의상으로 정착되었다<sup>25</sup>).

1982년에는 중고생 교복 자율화 조치와 스포츠 레저 붐, 마이카 붐, 외식산업의 번창, 자연 건강식품 선호 및 의복의 하이 패션화 등의 영향으로 시행된 수입자유화 바람이 진즈 업계에 미쳐 라이선스 브랜드를 도입하게 되었다<sup>26</sup>). 국내 의류업체들은 해외 브랜드를 앞다퉈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진즈 시장은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반도패션의 죠다쉬, 한주통상의 리바이스, 삼도물산의 써지오 바렌테 등이 도입되어 진즈 패션을 가속화시켰다<sup>27</sup>).

1988년에서 1989년에는 디자이너 캐릭터를 강조한 고급 브랜드들이 출현하였다. 일경물산에서 게스를, 설아 패션에서 캘빈 클라인을, 금경에서 마리페 프랑스와 저버를 수입하여 국내의 진즈 의류 고가형성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부터 기존의 정통 진즈와 고가의 캐릭터 진즈간의 경쟁이 가시화되었고 지금까지 정통 진즈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진즈 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라는 개념을 불리일으키게 되었다. 스타일면에서도 기존의 정통 스타일에서 디자이너의 캐릭터가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의 진즈라는 개념이 형성되게 되었고 아메리칸 진즈와 유로피안 진즈란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되었다<sup>28</sup>).

1992년에는 복고풍의 패션이 유행하면서 1970년대 히피풍과 그런지 패션 경향이 어우러져 낡은 진즈가 인기를 끌었다<sup>29</sup>).

1993년 이후에는 수입완제품 브랜드들이 국내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의류업계의 불경기에도 진즈 시장은 연평균 10%이상 계속 성장 추세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1993년에는 40%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sup>30</sup>).

1995년에는 국내 브랜드인 닉스가 출현하여

진즈 산업에서 새로운 신드롬을 창조하였는데, 동양인에게 잘 어울리는 실루엣으로 젊은 여성 층에 인기를 독차지하였다<sup>31)</sup>.

1990년대 이후 타운 캐주얼 의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진즈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숙녀복 브랜드에서 이러한 패션 경향에 대응하여 캐주얼 웨어뿐 아니라 정장류와 조화될 수 있는 아이템 개발로 진즈 웨어의 패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III. 한국 진즈 패션의 조형적 특성

#### 1. 스타일 유형

전통적인 블루 진즈 스타일과 함께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다양한 패션 진즈가 다양한 가공법과 구성법의 발달과 함께 다양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다.

##### 1)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은 카우보이 패션의 웨스턴 셔츠, 웨스턴 부츠 등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스타일이다. 전통적인 과거 광부들의 튼튼한 작업복과 농장의 카우보이의 노동복이었던 블루 진즈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패션 감각이 넘치는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금속장 장식, 술장식 등이 표현되었고, 카우보이 모자, 부츠 등이 함께 착용되었다.

2005년 잠뱅이의 <그림5>와 같은 진즈 패션에서는 튼튼하고 편안한 형태의 전통적인 블루진즈와 블루종의 조화를 표현하였고, 2005년 codes combine은 <그림6>과 같이 전통적인 편안한 블루진즈를 다소 헐렁하게 표현하거나 흰색의 크롭트 팬츠로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니트 머플러로 캐주얼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2001년에 OPT는 초록색 진즈의 바지단의 울을 풀고 갈색 데님 블루종에 카우보이 모자로 웨스턴 스타일을 표현하였고, 2004년 Nix는 기본형의 블루진즈와 블루종으로 웨스턴 스타일을 표현하였는데 블루종의 주머니를 입체감이 나게 변화를 주었고 단추탭으로 주머니를 강조하였다. 96NY는 2003년에 변화있는 블루종에 꽃무늬 원피스로 컨트리적인 웨스턴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 2) 핑크 스타일

핑크 스타일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반체제 지향으로 기존의 질서와 격식을 깨뜨린 차림으로, 영국 런던에서 반항적이고 불량스러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197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sup>32)</sup>.

기존의 미의식에 대한 도전적인 표현으로 대담하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스타일을 말한다.

한국 진즈 패션의 핑크 스타일은 슬래시, 구멍뚫기, 올풀기 등의 표현과 함께 찢어진 스타킹, 다른 소재와 트리밍을 너털너털하게 겹친 장식, 금속체인 장식 등을 통해 파괴적이고, 단



<그림5> 웨스턴 스타일, 잠뱅이, ELLE 2005. 5. p.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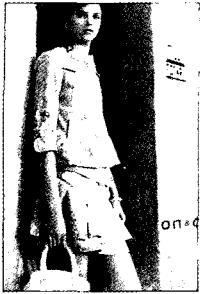
<그림6> 웨스턴 스타일, Codes combine, ELLE 2005. 11. p.250



<그림7> 핑크 스타일, X, Marie claire 2002. 4. p.87



<그림8> 핑크 스타일, Y&KEI, Marie claire 2003. 11. p.333



<그림9> 네오클래식 스타일,  
ON&ON,  
Marie claire 2005. 3.p.55



<그림10> 네오클래식 스타일,  
강기욱,  
Marie claire 2004. 2 p.221



<그림11> 에스닉 스타일,  
임선옥,  
Marie claire 2000. 5. p.315



<그림12> 에스닉 스타일,  
진태욱,  
Marie claire 2002. 1.p.59

정하지 않은 무질서한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림7>은 2002년 X의 작품으로 무질서하게 찢어진 워싱된 블루 진즈에 금속 체인 벨트로 장식하여 핑크 스타일을 표현하였으며 과감한 문양의 프린팅된 티셔츠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림8>은 2003년 Y&Kei의 회색 데님의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로 불규칙하게 재단되고 밑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울이 풀려 있으며, 레이스와 트리밍을 너털너털하게 겹쳐 비대칭적인 형태를 이루어 터프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 밖에 설윤형은 2002년에 데님 블루종에 옷핀을 여러 개 꽂아 장식하고 한 쪽 지퍼를 열린 형태로 여러 번 감아 장식하고 소매를 무질서하게 울풀기로 장식하여 파격적인 표현으로 핑크 패션을 선보였다. A6는 2002년에 허벅지에 대담하게 구멍이 뚫린 페인팅한 블루 진즈로 핑크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 3) 네오 클래식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은 충분히 장식적이고 공들인 디자인으로 상징되는 고전적인 복장에 대한 동경의 표현으로 현대적이고 새로운 감각으로 현대에 재생한 스타일이다.

On & On은 2005년에 파스텔톤으로 부드럽게 워싱한 진에 자수장식을 한 재킷과 플레어 스커트를 조화시켜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같은 소재의 가방으로 마무리하여 네오 클래식 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9>. 강기욱은 2004년에 다양한 색상의 진과 다양한 소재의 프릴을 장식

한 스트랩리스 드레스를 발표하여 네오 클래식 스타일을 연출하였다<그림10>.

오브제가 2005년에 발표한 크리스탈 장식의 세련된 뷔스티에<그림21>, 2002년 안혜영이 발표한 표백기법의 진 원피스와 재킷<그림22>, ab.f.z.이 2005년 발표한 큐빅 장식의 진 스커트<그림18>, 비즈 장식과 자수 장식의 블루 진즈, 단정한 진 테일러드 재킷, 장식적인 샤넬 재킷과 조화시킨 심플한 블루 진즈 등을 통해 네오 클래식 스타일이 제시되었다.

### 4) 에스닉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은 민속적인 요소가 표현된 스타일이다.

임선옥은 2000년에 민속적인 모티브의 비즈 자수 장식으로 된 넓은 트리밍을 햄라인과 주머니에 장식한 롱 진 스커트를 발표하여 에스닉 스타일을 선보였다<그림11>. 진태욱은 2002년에 패치워크로 장식한 짧은 진 블루종과 블루 진즈로 에스닉 스타일의 진즈 패션을 제시하였으며<그림12>, BNX도 패치워크 장식의 블루 진을 2003년에 발표하였다. 루비나는 2000년에 깃털 장식을 목에 장식하고 다양한 색상의 진을 패치워크한 팬츠로 에스닉 스타일을 선보였다. VOV는 2002년에 긴 프린지 장식의 블루 진즈를 발표하였고 ab.f.z.는 2005년에 민속적 모티브 자수 장식의 블라우스와 조화된 진 스커트를 발표하여 에스닉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 2. 디자인 특성

### 1) 소재

소재의 경우 전통적인 면 테넬이 주로 사용되었다. 소재의 사용 경향을 살펴보면, 바디 컨서스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트레치 진이 사용되었으며, 워싱 기법과 색상, 질감 변화 등을 이용한 진 소재끼리의 다양한 조화와 면, 쉬폰, 레이스, 니트, 레이온, 가죽, 호피 등의 소재와 믹스 앤 매치 룩의 표현으로 다른 소재와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그림13>  
스트레치 진즈,  
96ny, ELLE 2001.  
11. p.45

<그림13>은 2001년 96NY가 발표한 작품으로 스트레치 진을 사용하여 바디 컨서스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그림14>는 박지원의 2000년 작품으로 워싱 처리한 진을 스웨이드와 조화시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림15>는 진 자체를 워싱 처리하여 소재에 변화를 준 작품으로 2001년 오브제가 발표하였다. <그림8>은 진과 레이스, 다양한 트리밍으로 소재의 믹스 앤 매치를 표현하였다. <그림10>은 다양한 색상의 진과 다양한 광택 소재와 비치는 소재를 조화시킴으로써 진의 이미지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림14> 진과 스웨이드의  
조화, 박지원,  
Marie claire 2000. 4. p.204



<그림15> 워싱 기법의  
진즈, 오브제,  
Marie claire 2001. 10. p.74

### 2) 색채

색채의 경우 전통적인 다크 블루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블루, 라이트 블루, 블랙, 레드, 그린, 칼라 믹스 등의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그림16>은 A6, Nix, GV2가 2001년에 발표한 진즈 팬츠로 옐로우, 그레이, 레드, 그린 등으로 염색된 진즈 팬츠이다. 그 밖에 진태옥은 2003년에 옐로우 진 블루종을 발표하였고, VOV는



<그림16> 다양한 색상의 진즈,  
A6, NIX, GV2, ELLE 2001. 5. P.375

2003년에 화이트 진 원피스에 그레이 진 블루종을 발표하였다.

### 3) 표현기법

표현기법으로는 자수, 페인팅, 슬래서, 비즈, 스팅글, 큐빅, 패치워크, 워싱, 염색, 올풀기, 프린팅, 징, 스티치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17>은 EnC의 2002년 작품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진 스커트이며, <그림18>은 ab.f.z.의 2005년 작품으로 큐빅을 장식한 스커트이다.

<그림19>는 금속징을 장식한 진 재킷으로 X가 2001년에 발표하였다. <그림20>은 Nix가 2004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힙 허거 진즈에 징을 박은 넓은 벨트로 장식하였다.

### 4) 활용방안

활용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아이템이 전통적



<그림17> 아플리케 장식의 진 스커트, Enc, Marie claire 2002. 3. p.69



<그림18> 큐빅 장식의 진 스커트, ab.f.z., ELLE 2005. 3. p.16



<그림19> 징 장식의 진 재킷, X, Marie claire 2001. 9. p.109



<그림20> 힙 허거 진즈, NIX, Marie claire 2004. 6. p.212

인 팬츠와 블루중이며 다양한 아이템과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그림21>은 오브제가 2000년에 발표한 크리스털 장식의 뷔스티에이며, <그림22>는 안혜영이 2002년에 발표한 표백한 진 원피스와 재킷이다. <그림23>은 96NY가 2001년에 발표한 워싱 기법의 진 코트이며, <그림10>은 드레스, <그림8, 17, 18>은 스커트이다.

2002년에 손정완은 데님 머플러를 발표하였으며, 그 밖에 모자, 가방, 구두 등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3. 조형특성

한국 진즈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으로 전통성, 관능성, 파격성, 과시성 등이 표현되었다.

#### 1) 전통성

전통성은 진즈, 웨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표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블루 진즈와 본래 개념인 데님의 작업복 형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변형되거나 과장되지 않은 기본형의 진즈 웨어에서 균형 잡힌 조형미를 유지함으로써 기능성과 합리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웨스턴 스타일의 재킷, 셔츠, 팬츠 등을 통해 전통성을 표현하였다.

<그림1>의 1905년의 블루중은 초기 진즈 웨어로서 <그림5>의 2005년 잠뱅이의 블루중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그림2>에 제시된 초기 진즈인 1933년의 펠빵다는 단추가 있는 데님 팬츠는 <그림6>의 codes combine의 작품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편안하고 기능적이며 작업복 형태의 전통적인 웨스턴 스타일의 진 블루중, 팬츠 등에서 전통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21> 크리스털 장식의 진 뷔스티에, 오브제, ELLE 2000. 5. p.314



<그림22> 표백 기법의 진 원피스와 재킷, 안혜영, Marie clair 2002. 5. p.261



<그림23> 워싱 기법의 진 코트, 96ny, ELLE 2001. 9. p.76



<표1> 한국 진즈 패션의 특성

특성	조형성	전통성	관능성	파격성	과시성
디자인					
스타일 유형	웨스턴스타일	펑크스타일 네오클래식스타일	펑크스타일 네오클래식스타일 에스닉스타일	네오클래식스타일 에스닉스타일	
표현기법	징, 스티치 위싱, 술장식	슬래시, 올풀기, 찢기, 노출, 밀착	슬래시, 위싱, 올풀기, 찢기, 페인팅, 패치워크, 자수, 비즈, 스팽글, 큐빅	자수, 비즈, 스팽글, 큐빅, 페인팅, 패치워크	
디자이너, 브랜드	잠뱅이, OPT, codes combine	강기욱, Nix, GV2, 96NY	강기욱, 임선옥, 오브제, Y&Kei, X IN X	설윤희, 안혜영, 진태욱, on&on, 96NY	

2) 관능성

관능성은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진즈 웨어는 실용성을 강조한 노동복으로 관능성과는 무관한 아이템이었으나 현대 패션에서 자유분방함이 나타내면서 관능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인체에 밀착된 진즈 팬츠, 슬래시, 커팅, 구멍 뚫기를 통한 성적 부위의 직접 노출, 속옷 노출 등을 통해 관능성이 표현되었다.

<그림7>의 진즈는 진즈의 형태가 신체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진즈의 찢어진 부위를 통해 다리와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불규칙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힙 허저 진의 형태로 인해 배 부위 또한 노출되어 있어 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0>의 경우에도 힙 허저 진즈로 배부위가 노출되어 있으며, 허벅지 부위가 밀착되어 있어 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3>은 스트레치 진으로 하체 부위가 밀

착되어 있어 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10>은 네오클래식 스타일의 드레스로서 어깨, 등, 다리 부위가 노출되어 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8, 9, 18>도 마이크로 또는 미니 스커트로서 다리를 노출하고 있어 노출에 의한 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3) 파격성

파격성은 전통적인 미의 개념을 벗어난 비대칭, 부조화, 불균형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진즈 웨어의 특성을 지나치게 벗어난 표현으로 슬래시, 찢기 등으로 손상된 표현, 패치워크, 팬츠의 형태를 펼쳐 만든 스커트, 장식, 레이스 등 이질적인 소재와의 조화 등에서 파격성이 파악될 수 있다.

전통적인 진즈의 형태가 100년 이상 유지됨으로써 진즈 웨어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진즈의 형태에서 벗어난

표현들을 통해 파격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7, 8>은 핑크 스타일로서 덮여져야 할 부위의 노출, 이질적인 소재와의 조화 등을 통해 기존의 미의식과 부조화된 파격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9, 10>은 네오 클래식 스타일로서 기존의 진즈 웨어인 기능성을 증시하는 작업복과 대조적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자수 장식과 플레이어 장식, 프릴 장식, 노출 등으로 표현된 수트와 드레스로서 파격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1, 12>는 에스닉 스타일로 기능이 중시되는 전통적 진즈 웨어와 대조적으로 민족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파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7, 18, 21>등은 애플리케, 큐빅, 크리스탈 등의 장식을 통해, <그림22, 23>은 원피스, 정장 재킷, 코트라는 아이템을 통해 기존의 기능이 강조된 작업복 진즈 웨어와는 대비되는 파격성을 나타낸다.

#### 4) 과시성

과시성은 자랑하고 사실보다 크게 보이려는 표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작업복이었던 진즈 웨어가 디자이너에 의해 표현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과시하게 되었다. 또한 수공예적 기법인 자수와 비즈, 모조보석, 크리스탈 등을 장식한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진즈 웨어를 통해서 과시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9, 10>은 네오 클래식 스타일의 자수 장식의 페미닌한 재킷과 플레이어 스커트, 화려한 색상의 프릴 장식을 한 스트랩리스 드레스로 드레시함과 장식을 통해 기존의 진즈 웨어의 표현성보다 고급스럽게 돋보이려는 과시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11, 12>는 특정한 민족성을 통해 기존의 진즈 웨어와 차별화를 통해 과시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17, 18, 19, 21> 등도 애플리케, 큐빅, 크리스탈 장식 등의 과도한 장식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표현성을 나타낸다.

한국 진즈 패션의 특성을 종합하면 <표1>과

같다.

전통성은 웨스턴 스타일에서 스티치, 징, 워싱, 술장식 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잠뱅이, OPT, codes combine 등의 브랜드에 의해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관능성은 핑크 스타일과 네오 클래식 스타일에서 슬래시, 울풀기, 찢기, 노출, 밀착 등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강기옥, Nix, GV2, 96NY의 디자인에 의해 제시되었다.

파격성은 핑크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에서 슬래시, 찢기, 패치워크, 자수, 비즈, 스팅글 등을 사용하여 강기옥, 임선옥, 오보제 등에 의해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과시성은 네오 클래식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에서 자수, 비즈, 스팅글, 큐빅, 페인팅 등을 통해 설윤형, 안혜영, 진태옥, on&on 등의 디자인에 의해 제시되었다.

## IV. 결론

현대 패션에서 진즈 패션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진즈 패션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진즈 패션의 스타일 유형은 웨스턴 스타일, 핑크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등이 전개되었다.

둘째, 디자인 특성은 소재, 색채, 표현기법, 활용방안이 다양해졌다.

셋째, 한국 진즈 패션의 조형 특성은 전통성, 관능성, 파격성, 과시성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진즈 패션은 다양한 디자인 특성과 스타일 유형을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변화 발전하여왔다.

앞으로 생활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활동성과 장식성이 더욱 중요시되므로 진즈 패션은 기능면과 디자인 면에서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1) John Fiske (1989).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The Jeaning of America*. Boston: Unwin Hyman, pp.1-21.
- 2) 삼성패션연구소 (2002). 이은진 Report. *Jeans Fashion의 변천 및 시장 전망*.
- 3) 박성실 (1994). 1960년대 미국의 진즈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최진이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진즈 웨어의 양면적 가치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최진경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진즈 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Gilles Lhote et Christian Audigier (1992). *Le Jeans des beres. Des pionniers aux rebelles 1850-1950*. Paris: Lincoln, p.61; 홍순화 (1996). Jean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p.3에서 재인용.
- 7) Palais Galliera (1994). *Histories du Jeans : 1750-1994*. Paris: Musees, p.29.
- 8) Joseph M. L. (1996). *Introductory Textiles Science*. New York: Holt, Rinehan & Winston, p.57.
- 9) Mary Kefgen & Phyllis Specht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pp.82-83.
- 10) Palais Galliera (1994). Op. cit., p.33.
- 11)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p.531.
- 12) Fred Davis (1992). *Fashion, Culture & Ident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69.
- 13) William Gilohrist, Roberto Manzotti (1992). *Cult*. Verlag AG : Sportswear International, pp.16-19.
- 14) Fred Davis (1992). Op. cit., p.69.
- 15) The Jeans Encyclopedia (1991). Verlag AG : Sportswear International.
- 16) 김민정 (2000). 진즈 패션의 상징성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pp.6-7.
- 17) Farid Chenoune (1993). *A History of Man's Fashion*. Flammarion, pp.229-240.
- 18) Texherald (2003. 3). pp.3-4.
- 19)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1). *현대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218.
- 20) 홍순화 (1996). Op. cit., p.38.
- 21) Ibid., p.40.
- 22) 멋 (1984. 5.). p.106.
- 23) 금기숙외 (2001). Op. cit., p.229.
- 24) 홍순화 (1996). Op. cit., p.40.
- 25) 금기숙외 (2001). Op. cit., p.249.
- 26) 섬유년감 (1985). p.457.
- 27) 섬유저널 (1994. 3.). p.82.
- 28) 홍순화 (1996). op. cit., p.42.
- 29) 한국일보. 1993. 4. 16.
- 30) 섬유저널 (1993. 2.). p.248.
- 31) 섬유저널 (1996. 4.). p.203.
- 32)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Op. cit., p.66.